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5/12/01~2025/12/07]

2025.12.08

[로봇] 약속의 연말 연초

- 미국의 로봇 리쇼어링 강화. 로봇 모멘텀에 내년 美행정명령 기대감이 새로이 추가
- 현대차 BD 관련 밸류체인 들썩. 로보티즈도 액츄에이터 공급으로 화제
- 韓 휴머노이드 & AI 스타트업 펀딩도 한단계 레벨업. 홀리데이로보틱스 1,500억 조달 추진

[방산] 앞으로는 더 불안한 세상이 펼쳐진다

- 7.7조원 스페인 자주포 사업, K-9 공급 기대감 확대
- 2026년 국방예산 65.8조원으로 전년비 7.5% 증가 확정
- 미국의 新 NSS, 나토 유럽 방어 주도 요구. 동맹국 부담 확대

[항공] 11월 항공 여객 실적

- 캐나다의 SAFE 참여로 캐나다 잠수함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 加 특사 파견
- 삼성중공업도 마스가. 미국 나스코, 콘래드 조선소와 협업
- 11월 글로벌 선박 발주 한국 점유율 38%, 중국 50%

[조선] 캐나다의 SAFE 참여

- 자카르타 노선 배분 두고 제주·이스타·티웨이·프레미아 경쟁
- 고환율속, OPEC+ 증산 보류 재확인에 공급 차질 우려 확대
- 아시아나 LA 운항 감축, 뉴욕은 내년부터 유나이티드항공이 신규 운항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약속의 연말 연초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는 약속의 연말 연초 진입. 올해는 현대차의 로봇 양산 기대감이 키포인트. 그 외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로봇 모멘텀도 다수 깔려있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6)

[약속의 연말 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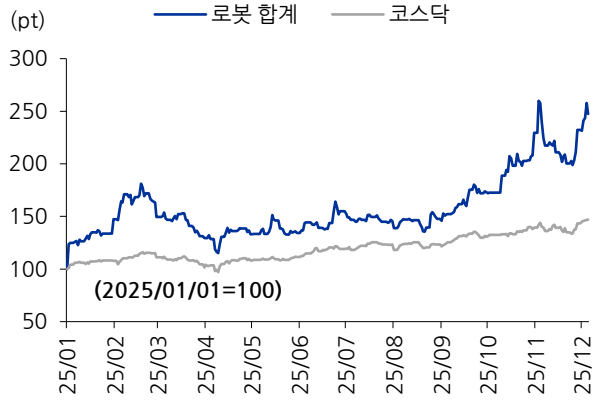
- 로봇株는 연말 연초에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계절성이 있음. 기업들이 미래 비전을 그리는 시기이기 때문.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성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작년까지는 주로 삼성전자의 행보에 영향을 받았으나, 2025년 단연코 국내 로봇 시장의 센티먼트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은 연구개발에서 초도 양산기로 페이즈가 전환되고 있음. 현대차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양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 그룹사, 기존 협력사, 로봇 부품 전문 회사와의 합종 연횡이 기대되는 상황. 내년 상반기 까지 로봇 섹터의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2~3월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 3월 GTC 2026 & 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옥 완공, 5~6월 유니트리 상장 등. 지난 주 미국의 로봇 관련 행정명령 발표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새로운 모멘텀 추가. 행정명령과 별개로 5월까지 상무부의 로봇 관련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예정. 미국과 중국의 로봇 경쟁 심화시, 공급망 전환 관점에서 한국 수혜가 기대되었으나,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는 시기가 찾아올 것.

Key Chart: 2026년 주요 로봇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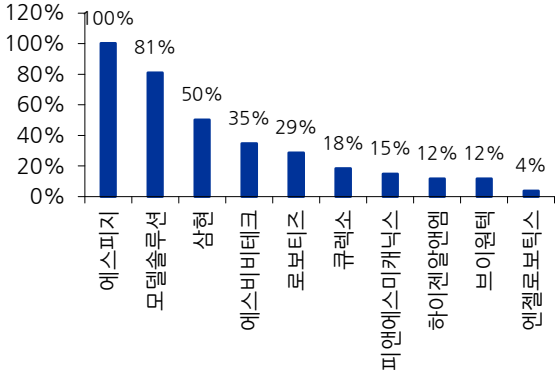
일정	내용
1월 6일~9일	*CES 2025 개최(현대차 로봇 기대감)*
1~2월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 예정*
3월	*엔비디아 GTC 2026(16일~19일)* *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옥 완공*
26년 상반기 中	*유니트리 로보틱스 IPO* *미국 로봇 행정명령*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12/01~12/07)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두산로보틱스 로봇 공장 가동률 16%로 급락
- 씨메스, 쿠팡과 물류 로봇 자동화 솔루션 설치 계약 체결
- HD현대로보틱스, 내년 상장 겨냥 IPO 주관사 선정 돌입
- HD현대 조선소 협동로봇 170대 돌파
- 현대차, 차세대 로봇 플랫폼 '모베드' 양산형 모델 첫 공개

[휴머노이드]

- 홀리데이로보틱스, '1500억' 시리즈A 시동. 대규모 펀딩
- HL만도, 원주공장에 국산 휴머노이드 '앨리스 M1' 투입

[부품/SW/기타]

- 삼성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 생산시설 3개월 지연
-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구매
- 리얼월드 "내년 3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개"
- 에스비비테크, 계양전기와 모베드 DnL 모듈 공급 계약
- 한국피아이엠, 로봇 손 공동 개발사 '본시스템즈' 지분 투자
- 뉴로메카, 피지컬 AI 모방학습 플랫폼 '미믹스' 내달 출시

[Global]

- 트럼프 행정부, 2026년 로봇 분야 '행정명령' 추진
- 테슬라, 옵티머스 '달리기 영상, 2년 반의 놀라운 진화'
- 英 Humanoid, 로봇 보행 훈련을 단 이틀 만에 완료
- 日 야스카와, 美에 1.8억달러 투자. 현지 첫 로봇 생산공장
- 中 휴머노이드용 6축 센서 출하량 1만 대 돌파
- 中 엔진AI, 휴머노이드 로봇 'T800' 발표
- 中 아톰로봇, 휴머노이드 '아톰 01' 공개
- 中 오이모션, 로봇핸드로 200억원 투자 추가 유치

Weekly Keyword

앞으로는 더 불안한 세상이 펼쳐진다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함. 결론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 동맹국의 방위 부담은 지속 확대되면서 무장의 수요는 증가할 것. 방산 업종 센터먼트에 긍정적 영향.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54)

[앞으로는 더 불안한 세상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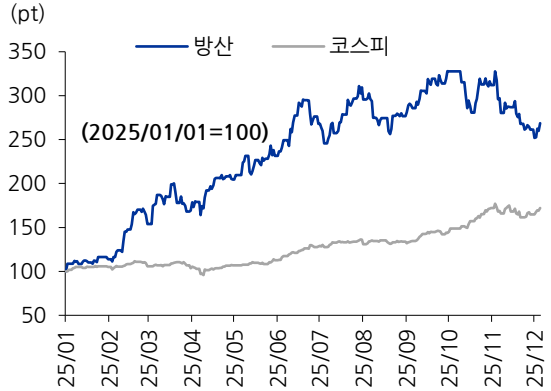
- 미국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함.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재천명함. (2) 과거의 무분별한 개입주의와 세계화 정책을 실패로 규정함. (3) 미국의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실리적 접근'을 강조함. (4)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함.
- 힘에 의한 평화 추구, 그리고 고립주의 노선 채택으로 글로벌 지정학 불안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와 유럽은 미국의 관여 축소 흐름에 따라 자주국방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 아이러니하지만, 지정학 불안감 확대는 방산 업종의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것.

Key Chart: 트럼프 2기 N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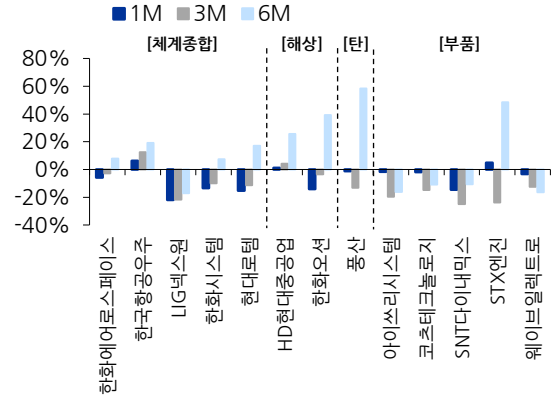
대상	바이든	트럼프 2기
중국 및 대만	중국 및 대만 양쪽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대만 독립 지지 X, 방위력은 지원	일방적 현상 변경 지지 않음 대만 장악 시도 거부할 미국 및 동맹 역량 강화
북한	한반도 완전 비핵화 목표 북한 대량살상무기 억제	북한 언급 없음
한국	한국 등 인태 동맹국 방위 약속 재확인	자주적 방위 지출 확대 침략 억지력 투자 압박 항구 등 시설에 대한 미군 접근 허용 압박
우크라·러시아	우크라 주권 보전 러시아 침략 대가 부과	전쟁 종전 위해 협상하고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 재구축
유럽	나토 강화 미국은 나토 집단방위에 헌신	유럽이 스스로 방위 책임지고 미국에 시장 개방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방산 주요 뉴스(12/01~12/07)

[수주/계약]

- 스페인 인드라, 한화에어로 K9 자주포 도입 추진
- 필리핀, KF-21 도입 추진. 클라크 기지 MRO센터 설립 협의
- 한화, 중동·아프리카에 K9·천무 솔루션 제안
- 말레이, 155mm 자주포 내년 도입. 한화에어로 등 경쟁
- 한화에어로, 2,254억원 규모 '천검' 2차 양산 계약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기술개발·마케팅용 K-9 자주포 제작
- 현대로템 "내년 철도 매출 2조, 내년 뉴욕 전동차 총력"
- LIG넥스원, 구미에 3,740억 투자해 신공장 구축
- LIG넥스원, AESA 레이다 반도체 국내 기술로 개발
- 한화시스템, 제주에 연 100기 '민간 위성 제조 허브' 완공

[기타]

- 내년 국방예산 7.5% 증가한 65조 8천억원으로 확정
- 대통령실 '방위산업담당관' 6개월도 안 돼 직제 없앴다
- 직충돌드론·초소형 자폭드론 등 교육사서 전투실험
- 국과연, KF-21 탑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착수

[글로벌]

- 美, 유럽에 나토 재래식방어 주도 요구. 27년 시한 제시
- 독일 의회, 연방군 증강 위한 자발적 징병제 도입 승인
- 미러, 우크라 종전 논의. "푸틴, 美제안 일부만 동의"
- 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
- 미국, 폴란드에 중고 스트라이커 250대를 1달러에 제안
- 日, 무기수출 '용도제한' 규정 내년 4월께 철폐 추진
- 태국, 이스라엘의 바락 MX 대공방어 미사일 선정

Weekly Keyword

11월 항공 여객 실적

11월 여객 데이터는 견조했음. 장거리 및 동남아 노선 수요는 계절성 등으로 부진하지만, 일본과 중국 노선 수요가 견조. 수익성 관점에서는 단거리가 더 우위에 있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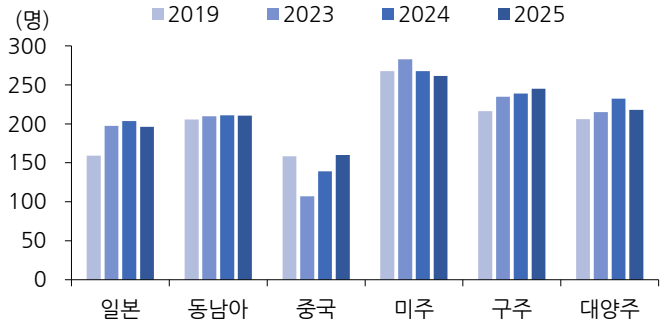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4)

[11월 항공 여객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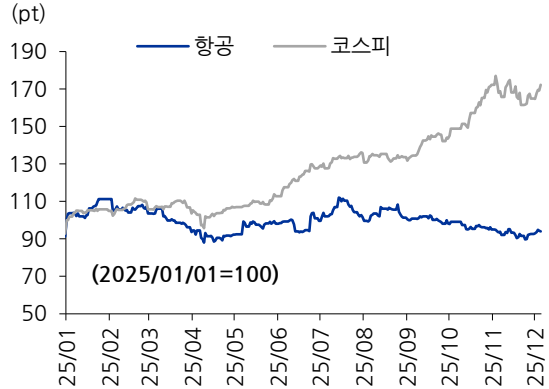
- 11월 국제선 여객 796만명(+7%yoy, -4%mom), 국내선 여객 561만명(+10%yoy, -2%mom)로 견조한 여객 흐름 지속됨. 추석 연휴가 있었던 10월 대비로도 양호한 실적.
- 노선별로는 일본 157만명(-1%yoy, +0%mom), 동남아 157만명(-12%yoy, -2%mom), 중국 102만명(+29%yoy, -10%mom), 대양주 24만명(+19%yoy, +10%mom), 미주 54만명(+1%yoy, -9%mom), 유럽 37만명(+8%yoy, -24%mom)을 기록. 중/단거리 강세 시즌 돌입. 동남아는 연중 부진한 모습 지속. 공급석 유지 조치로 운임 하락 중인 대양주로 일부 여객 이탈. 동남아 부진은 중국과 일본 노선으로도 흡수되는 중. 수익성 관점에서는 중국 > 동남아로 오히려 항공사 실적 개선에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FSC 중심).

Key Chart: 노선별 편당 여객수(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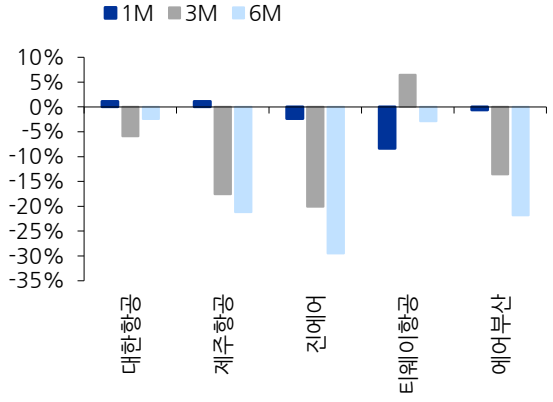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항공 주요 뉴스(12/01~12/07)

[여객/화물]

- 유나이티드항공, 내년 '인천~뉴욕' 직항 연다
- 엔진 수급 문제로 아시아나 21년 만에 LA 축소 운항
- 자카르타 노선 두고 제주·이스타·티웨이·프레미아 경쟁
- 파라타항공, 인천~오사카 노선 주 7회 취항
- 제주공항 국제선 여객 300만 명 돌파 역대 최고치
- 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 체결. "아이슬란드 하늘길 열려"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항공사, '스타링크' 도입
- 대한항공, 메탄 엔진 개발 현대로템 '맞손'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목전 소폭 인사. 안정에 방점
- 대한항공, 高환율에 스위스프랑 채권 발행으로 통화 다변화
- 대한항공, 진에어와 4,381억 항공기 임대차 계약
- 에어서울, 200억원 규모 사모 회사채 발행

[기타]

- 내년 아시아나항공 T2 이전에 보안검색 대란 우려
- 인천공항 '도색 격납고' 조성 추진. MRO 허브 탄력

[글로벌]

- 中 항공사, 日 항공편 무료취소 3개월 연장
- 중국, 아르헨티나에 세계 최장 민항 노선 취항
- 일본 간사이공항 "중국 항공편 이달 둘째 주 34% 감소"
- 델타 "셧다운으로 2억달러 손실. 여행 수요는 견조"
- OPEC+ 증산 보류 재확인에 공급 차질 우려 확대
- 유럽 LCC들, 평화협정 체결 후 우크라 항공편 재개 준비

Weekly Keyword

캐나다의 SAFE 참여

캐나다가 SAFE에 참여하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에서 유럽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판단. 장기적 유지 보수 방안 등 캐나다가 중시하는 요건 충족 위한 노력 계속될 필요.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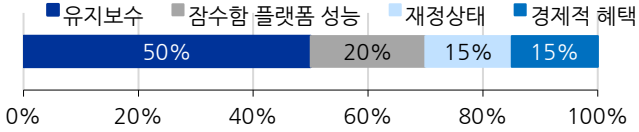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4)

[캐나다의 SAFE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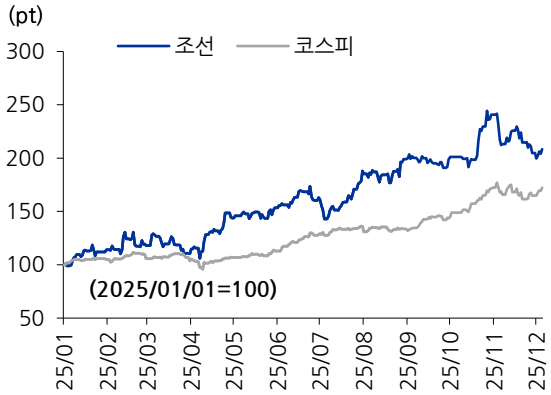
- 내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 예정인 캐나다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CPSP)의 수주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지난주, 캐나다의 EU의 방산 대출 프로그램인 SAFE 참여가 결정되었기 때문. 장기 상환기간과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되는 만큼, 독일이 금융 지원 관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다수.
- SAFE 대출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출 제도로, 캐나다는 대출 관점에서 직접 수혜가 아니라 '공동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SAFE 대출을 통한 무기 조달은 타 회원국 등과 공동조달이 기본 원칙. 캐나다는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 공동 조달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상호 운용성 확보 기대.
- 즉, SAFE 참여 = 독일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 기 공개된 입찰 평가 지표인 유지보수 50%, 잠수함 플랫폼 성능 20%, 재정 상태 15%, 경제적 혜택 15%를 참고하면, 오히려 장기 MRO 체제 구축을 위한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 등이 중요. 독일도 최근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상황. 캐나다로부터 차기 호위함 CMS 도입(1조원)을 결정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음. 한국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입찰 프로세스 마감까지 최선의 제안을 준비할 필요.

Key Chart: 캐나다 CPSP 입찰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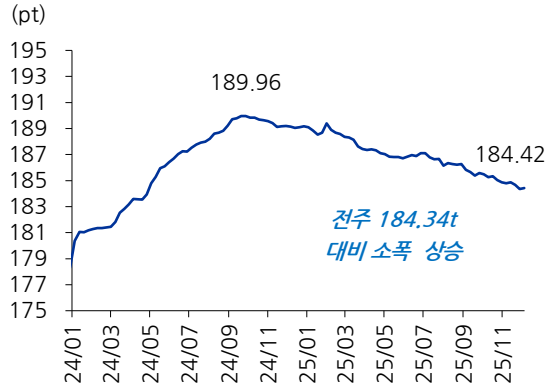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2/01~12/07)

[상선/해양]

- HD한국조선해양, LNG 운반선 1척 수주. 3,672억원 규모
- 한화오션, 오세아니아서 VLCC 2척 수주. 3,753억원 규모
- 11월 글로벌 선박 발주 한국 점유율 38%, 중국 50%

[특수선]

- 加 온타리오 경제부 장관, "내년 초 사업자 결정될 듯"
- 유럽 무기 공동조달 SAFE 프로그램에 캐나다 참여
- 유럽 장벽 현실로. 위기속 대통령 특사 캐나다行
- 첫발 내딘 '통합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수주에 사활
- 比, HD현대重 초계함 2척 추가 도입 계약 연내 마무리
- HD현대, 말레이시아 왕족과 회동. 내년 하반기 군함 입찰
- 한미 핵잠수함 건조, '투트랙 건조' 급부상
- 삼성중공업, 美 GD·콘래드조선소와 손잡고 현지 진출
- 삼성중공업, 美 나스코·디섹과 손잡고 MASGA 협력 확대

[기타]

- 한미, 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 마스가 따로 준비하는 조선업계. "기밀 많고 전략 달라"
- 美 선박 국내 건조시 中 부품이 발목잡을 수도
- 필리조선소 "美 현지 업체와 모듈식 공정 협력 검토"
- HD한국조선해양, 인도 내 조선소 설립 논의

[글로벌]

- 미국 텍사스 LNG 프로젝트, 20년 SPA 체결
- 인도, 20억 달러에 러 핵추진잠수함 임대
- 영·노르웨이, '러 잠수함 추적' 연합 함대 운용